

엿힘의 세계에서 기독교 윤리의 자리

- 선택 이전의 책임과 공동의 삶*

김희준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엿힘 시대와 윤리

II. 엿힘 존재들의 세계

1. 엿힘
2. 인류세-신기후체제-가이아
3. 가이아와 임계지대: 엿힘의 공간
4. 변형: 존재론적 혼합

III. 기독교 윤리의 자리: 행위자-연결망으로서의 교회

1. 교회됨의 재사유
2. 선택 이전의 책임: 윤리의 재구성
3. 현대: 열려짐의 존재론

IV. 공동의 삶과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08>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3037173). 또한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겨울 콜로키움에서 “엿힘의 세계에서 기독교 윤리의 자리: 선택 이전의 책임과 공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논문임을 밝힌다.

• ABSTRACT •

The Place of Christian Ethics in an Entangled World: Responsibility
Prior to Choice and the Common Life

This paper explores the place of Christian ethics within the ontological condition of “entanglement” in the Anthropocene. Under the New Climatic Regime, where climate crisis and ecological destruction continue to accelerate, the traditional dichotomies of subject/object and human/nature are no longer tenable. We are already entangled with countless human and nonhuman actors, and this entanglement is an ontological fact that precedes our choices. Drawing on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and his reconceptualization of Gaia, Emanuele Coccia’s ontology of metamorphosis, a new materialist reframing of hospitality, and the discourse of the commons, this paper proposes two ethical principles: “responsibility prior to choice” and “the common life.” It argues that Christian ethics must be reimagined not as a framework grounded in the autonomous moral subject, but as a relational practice of response-ability that emerges from our already entangled existence with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Key words: Entanglement, Christian ethics, Actor-Network Theory, Metamorphosis, Commons

I. 들어가는 말: 얽힌 시대와 윤리

우리는 연결된 존재로서 얽힌 세계에 살고 있다. 나름 자명한 이 명제를 설명할 예제들은 많은데, 그 중 이 업힘의 본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탄소 배출이 다른 대륙의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열대우림의 파괴는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미세플라스틱은 북극곰과 인간의 체내에서 함께 차별 없이 발견된다. 이러한 업힘은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을 넘어 존재론적 공동-구성(ontological co-constitution)을 떠올리기에 우리가 없어 보인다.¹⁾ 우리는 선택적으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본질적으로 지구 깊숙하게 자리잡은 채 얽혀 있다.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는 이러한 얽힌 세계에 대한 맥락을 윤리적으로 더욱 심화시킨다.²⁾ 인류는 이제 지구 지층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지만, 이 인류(Anthropos)는 균질한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³⁾ 기후위기의 책임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부유한 국가들의 역사적 배출이 가난한 국가들의 현재 재난으로 이어지고, 현재 세대의 소비가 미래 세대의 생존 조건을 잠식한다.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또한 흐려진다. 바이러스, 기후 시스템, 토양

1)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특히 3-4장;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1-57.

2) Paul J. Crutzen and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BP Newsletter* 41 (2000), 17-18.

3) Jason W. Moore,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in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ed. Jason W. Moore (Oakland: PM Press, 2016), 1-11.

4) Nicholas Tyler Reich, "Transplantationocene," in *The Anthropocene: Approaches and Contexts for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ed. Seth T. Reno (London, UK:

미생물, 가축 등 비인간 행위자들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음이 드러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얽힘을 존재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에서 기독교 윤리의 자리를 새롭게 물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인류세-신기후체제가 일으킨 존재론적 전환은 무엇이며, 그것을 사유할 이론적 자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둘째, 이 얽힘의 존재론은 기독교 윤리의 주체 이해, 즉 자유의지에 근거한 자율적 도덕 주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도록 요청하는가? 셋째, 교회는 얽힌 존재들의 세계에서 어떤 공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II장에서는 행위자-연결망 이론, 가이아-임계시대, 변형 존재론을 차례로 살피고, III장에서는 행위자-연결망으로서의 교회와 선택 이전의 책임을 논하며, IV장에서는 커먼즈의 존재론적 재정의를 제안한다.⁵⁾

II. 얽힌 존재들의 세계

1. 얽힘

“얽힘(entanglement)”은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는 개념이다. 양자역학에서 얽힘은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 변화가 즉각적으로 다른 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⁶⁾ 이는 국지적 실재론을 위배하며, 두 입자를 독립적 실체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⁷⁾ 도나 해러웨이는 이 개념을 생태학과 페미니즘으로

Routledge, 2022), 76-77.

5) 이 연구 질문의 명료화는 익명의 심사자의 제언을 수용하여 추가하였다. 서론에서 확인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후 논의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문의 문제의식과 구성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6)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ix.

확장하여,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되기(becoming-with)”의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⁸⁾ 캐런 바라드는 “내부-작용(intra-a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엷힘의 존재론을 더욱 미시적으로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실체들을 구성한다.⁹⁾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이러한 엷힘의 존재론을 사회과학에 도입한 선구적 시도이다. ANT는 1970년대 후반 프랑스 파리의 <에콜 데 민> 혁신사회학센터와 영국 랭커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라투르, 미셸 칼롱, 존로 등을 중심으로 여러 사상가들이 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¹⁰⁾ 이후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정치학, 환경인문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적’과 ‘기술적’, ‘인간’과 ‘비인간’, ‘거시’와 ‘미시’, ‘주체’와 ‘객체’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면서 기존 사회학의 근본적 가정들에 도전해 온 ANT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연결망을 통해 행위능력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¹¹⁾

7) 국지적 실재론(local realism)은 각 입자가 독립적 속성을 지니며 인접한 것에만 영향을 주고 받음을 전제한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논문(1935)이 이를 체계화했고, 벨(Bell 1964)의 부등식 및 이후 실험들이 양자역학이 이 가정을 위반함을 증명했다. 바라드는 이 물리학적 발견을 존재론 일반으로 확장하여, 독립적 실체를 전제하는 고전적 실재론에 반대한 대표적 학자다. Albert Einstein, Boris Podolsky, and Nathan Rosen, “Can Quantum-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Physical Review* 47, no. 10 (1935), 777-780; John Stewart Bell, “On the Einstein Podolsky Rosen Paradox,” *Physics* 1, no. 3 (1964), 195-200. Cf.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19-24.

8)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12-13, 15-16.

9)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132-185. 바라드는 양자물리학의 엷힘 현상을 존재론적으로 재해석하며, 관계가 관계항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 관한 개념을 신적 단일성에 적용하면서 발전시킨,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10)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ix.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란 의도나 의식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결을 형성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심리나 의지가 절대적이라기보다, 다양한 존재자들 사이의 긴장(tension)과 방향성(direction)의 교차다. 라투르는 이것에 대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쿠투조프 장군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¹²⁾ 쿠투조프의 판단, 명령, 행동은 병사들의 움직임, 지형, 날씨, 시간, 실패와 우연의 연속이라는 복잡한 힘들의 벡터(vector)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강, 바람, 세균, 미세먼지, 기후와 같은 존재들은 모두 특정한 방향성과 크기, 즉 기능과 목표를 지닌 벡터로 작동한다. 즉, ANT에서 ‘행위자(actor)’ 또는 ‘행위소(actant)’는 “차이를 만들어내는(making a difference)” 모든 존재를 지칭한다.¹³⁾ 이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 동물, 기술, 자연물, 텍스트, 제도 등 - 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효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ANT에 따르면, 어떤 행위자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구성된다. 연구자는 실험실, 장비, 미생물, 연구비, 동료들의 연결망, 연구를 발표할 학회지 등이 없이는 과학자가 될 수 없다. 기업은 노동자, 기술, 자본, 법률, 시장의 연결망 없이 기업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도 언어, 도구, 사회적 실천, 생물학적 신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연결망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ANT에서 얽힘은 상호의존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호의

11) Michel Calon and Bruno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277-303, in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ies*, ed. K. Knorr-Cetina and A. V. Cicourel (Boston, MA: Routledge & Kegan Paul, 1981), 279, 286.

12)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Cambridge: Polity Press, 2017), 49-54.

13) Jane Bennett,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서울: 현실문화, 2020), 10.

존은 독립적인 두 실체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ANT-엷힘은 실체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만 실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엷힘은 존재론적 우선성을 가진다. A와 B가 있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A-B 관계가 있고, 그로부터 A와 B가 분화되어 나온다. 이는 급진적인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으로서, 세계는 관계의 연결망이며, 실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¹⁴⁾ 모든 실체는 원래부터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며,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 실천들로부터 창발하는 것이고, 따라서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관계적이며, 이 관계성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존재하는 근본적 조건이다. 또한 이러한 ANT의 관계적 존재론을 가지고 라투르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들이 놓인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다시 재구성되는 관계망의 장으로 이해한다.

2. 인류세-신기후체제-가이아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Anthropos)가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주요 지질학적 힘이 된 시대를 가리킨다. 2000년 파울 크뤼천을 비롯해서 유진 스토머, 존 맥닐, 윌 스테픈 등이 사용한 이 용어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대가 충적세(또는 홀로세, Holocene)와 질적으로 다름을 주장한다.¹⁵⁾ 이들이 제시한 대기속과 인류세의 진단은 인간의 역사를 자연과

14) John Law, *After Method: Mess in Social Science Research* (London: Routledge, 2004), 69, 83.

15) Crutzen and Stoermer, "Anthropocene," 17-18; Paul Crutzen,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 23 (Jan, 2002), 211-215; John McNeill and Peter Engelke, *The Great Acceleratio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Anthropocene since 1945*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Will Steffen, Paul Crutzen and John McNeill,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분리시킨 채 자연을 철저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온 근대적 사고의 한계를 보였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 산업화, 도시화, 집약적 농업 등이 대기 조성, 기후 패턴, 생물다양성, 질소 순환, 해양 화학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지구가 더 이상 인간 생활의 안정적인 배경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인류세 개념은 자연과 문화의 근대적 이분법을 무너뜨린다. 라투르가 “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 것처럼, 근대성은 자연을 인간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 실재로, 문화를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의미의 영역으로 분리했다.¹⁶⁾ 그러나 인류세에서는 이러한 분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더이상 설득력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 대기의 CO₂ 농도는 ‘자연적’ 현상이자 ‘문화적’ 산물이다. 또한 기후 시스템은 물리적 과정인 동시에 정치경제적 과정이다. 라투르가 『가이아 마주하기』에서 역설하듯, 우리는 더 이상 ‘자연’ 위에 떠 있는, 또는 물러나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 안에 얽혀 있는 행위자들이다.¹⁷⁾

그러나 인류세 개념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류(Anthropos)’라는 단수 형태는 마치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지질학적 변화에 기여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는 탄소 배출, 자원 소비, 생태 파괴의 책임은 극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제이슨 무어가 제안한 “자본세(Capitalocene)”는 이 점을 강조한다.¹⁸⁾ 지질학적 변화의 주된 동인은 ‘인류’ 일반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논리라는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vol. 36, no.8 (Dec., 2007), 614-621.

16) Bruno Latour,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서울: 갈무리, 2009), 42-45.

17) Latour, *Facing Gaia*, 41-44.

18) Jason W. Moore,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Sociology Faculty Scholarship*, (1, 2016): 1-11.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결정해 온 온실가스의 역사적 배출량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초래했지만, 그 결과는 가난한 국가들과 취약 계층이 더 많이 짊어진다.

라투르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에서 자신만의 “신기후체제”에 관한 해석을 제시한다.¹⁹⁾ 그가 말하는 신기후체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기후 변화, 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정 구간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의 본성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정치는 인간 사회 내부의 일로 여겨졌으며 자연은 정치의 외부에 있는 고정된 무대였다. 그러나 앞서 주장했듯 신기후체제에서 자연은 더 이상 안정적 배경이 아니다. 기후 시스템, 생물권, 지질학적 과정이 모두 뒤엉켜 직접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한다. 허리케인,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의 현상은 인간의 삶과 분리된 채 일어나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얽히고설킨 정치적 사건이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라투르에 따르면 이러한 신기후체제는 이른바 근대의 기본 좌표들을 해체한다. 지구 또는 자연으로부터의 탈출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성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인간이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주 개발,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은 이러한 초월의 꿈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 꿈이 환상임을 드러낸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 없다.²⁰⁾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에 묶인(earthbound)” 존재다.²¹⁾ 라투르는 『가이아 마주하기』에서 이 전환을 극적인 역사적 서사로 설명한다.²²⁾ 갈릴레이의 코페르니쿠

19) Bruno Latour,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UK: Polity, 2018). Original work published in French *Ou Atterrir ? : Comment s'orienter en politique*, 박범순 역.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서울: 이음, 2021).

20) Latour, *Facing Gaia*, 2.

21) 위의 책, 287.

스적 혁명은 지구를 우주 속의 하나의 행성으로 만들었다.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밭을 딛고 사는 구체적인 땅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공간에 부유하는 천체가 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이륙(take-off)’이었다. 근대인은 지구로부터 무한히 떠올라 보편적 자연법칙의 관점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획득했다.²³⁾ 인간은 지구의 거주자가 아니라 지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은 이 이륙을 역전시킨다. 지구는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스스로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가이아는 우주에 부유하는 행성이 아니라, 생명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얽히고 변화하는 행위자다. 그래서 라투르는 러브록의 가이아 연구가 부유하는 인류를 다시 땅으로 데려왔다고 해석한다.²⁴⁾ 특히, 라투르는 러브록과 마굴리스를 계승하면서도, 가이아는 지구의 현현이지만 전체성을 지닌 어떤 시스템도, 유기적 전체도 아닌, “세속적”, 즉 전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채로 역사와 정치적 의미가 결합된 새로운 행위자, 하나지만 결코 하나가 아닌, 분산된 행위성의 총합, 그러나 하나의 전체가 아닌 것이라 주장한다.²⁵⁾ 라투르는 러브록이 여전히 근대적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비인간 존재로서의 지구에 대한 사유를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

종합하자면, 신기후체제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착륙을 강제하는 사건이다. 더 이상 인간은 지구 위를 부유하며 자연을 내려다보는 탈지구적 주체로 머물 수 없다. 기후 변화, 생태 붕괴, 종의 멸종은 우리가 지구적 제약과 의존성 속에 깊이 착근되어 있음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기시킨

22) 위의 책, 75-80.

23) 위의 책, 77.

24) 위의 책, 78-79.

25) 위의 책, 80-110.

다. 이는 정치의 지구화를 의미한다. 정치는 인간들 사이의 일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집합체 사이의 일로 확장 된다. 라투르는 이 일이 벌어지는 곳, 즉, 가이아가 출현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뒤엉키는 새로운 정치의 무대를 “임계지대(Critical Zone)”라고 소개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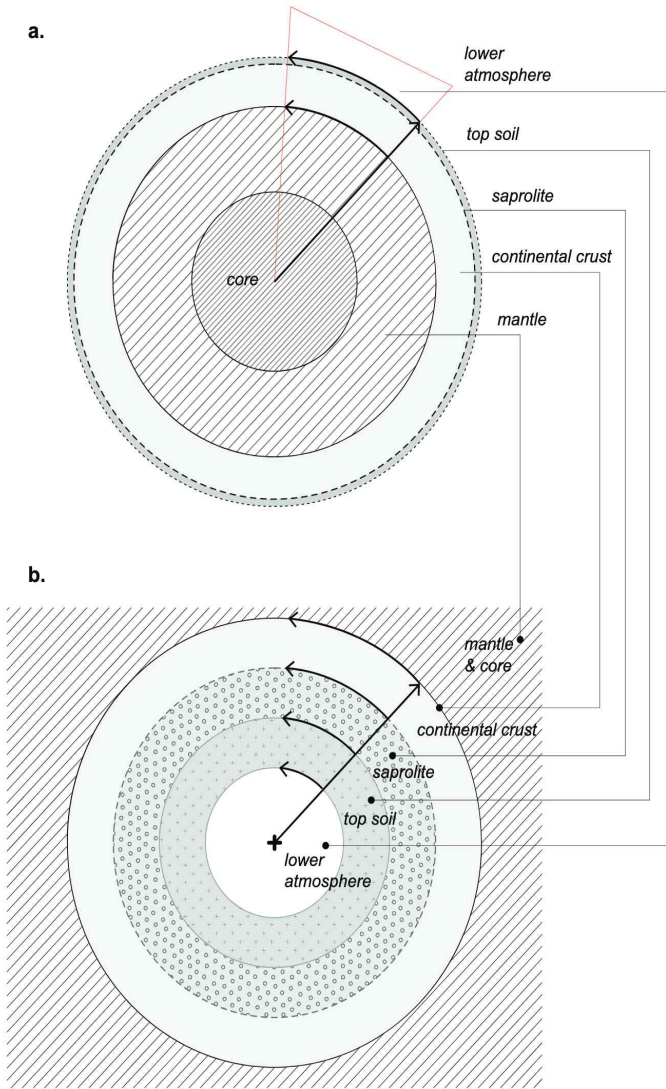
3. 가이아와 임계지대: 엄힘의 공간

라투르가 『가이아 마주하기』에서 언급한 임계지대는, 상층 대기에서 퇴적암 하부까지, 생화학자들이 정확히 ‘임계지대’라 부르는 곳을 가리킨다.²⁷⁾ 이곳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의 작업이 더해져야 한다. 임계지대는 지구 전체가 아니며, 우주적 스케일이 아니다. 아주 얇고 취약하지만,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거주하며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지표와 대기 사이 이 아주 얇은 층은 물, 공기, 토양,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 뒤섞여 있으며, 생명, 기후, 기술, 도시, 인간, 비인간 존재들이 서로를 변화시키며 얽혀 있는 지구 정치의 실제 무대다. 정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이제 이 혼종적 지대의 공동관리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존재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정적 실체 또는 객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형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라투르에게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되는 실체적 개념이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행위의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뜻이다. 앞서 설명했듯 라투르의 사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ANT에서 말하는 존재는, 기능과 벡터, 반응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라투르에 따르면, 존재와 의미는 동의어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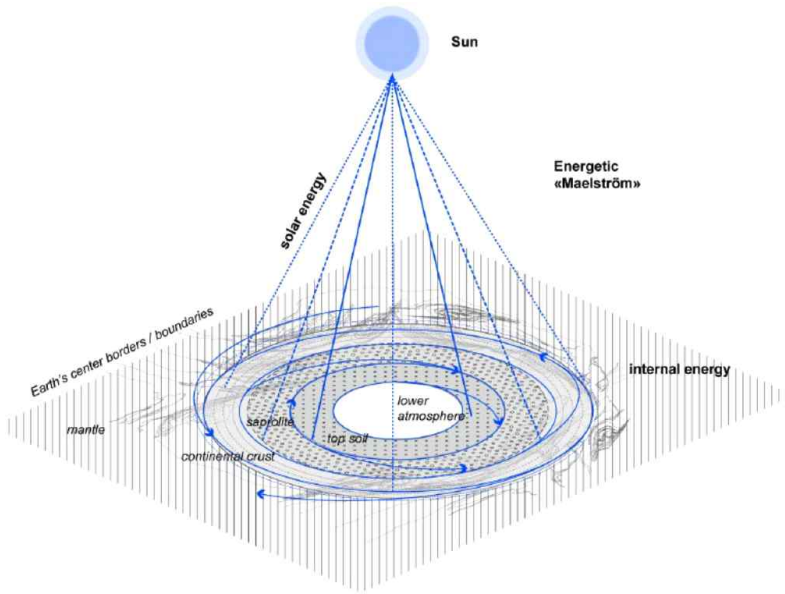
26) 위의 책, 140, 207, 275.

27) 위의 책, 93.



<그림 1>28)

28) 임계지대의 층위 재구성 (a)는 전통적 지구과학의 시각으로 임계지대가 지구 전체에서 극히 얇은 표면층임을 보여주고, (b)는 그 임계지대를 중심에 놓아 인간과 생명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적 조건을 부각한다. (a)는 생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층들이 거대



〈그림 2〉²⁹⁾

안에서 반응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벡터를 가지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세계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 속에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변형시키는 역동적 장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임계지대, 더 좁혀

한 핵과 맨틀에 비해 극도로 얇은 표피로 압축되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b)는 이것을 기하학적 변환을 통해 뒤집은 것으로서, 생명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층들(하층 대기, 표토 등)을 원의 중심부에 배치했다. 인식의 전환을 돕는 이 변환은 생명이 살고 있는 현장이야말로 지구에 대한 사유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 (b)를 중심으로 그림2를 살펴본다.

29) 그림 2는 세 힘의 집합으로서의 임계지대의 구조를 3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다. 태양 에너지(위, 외부에너지)와 심부 지구(아래, 내부에너지)가 각 층을 관통하며 물질과 원소를 순환시키는 양상을 드러낸다. 태양, 심부 지구, 생명체(살아 있는 존재들)가 교차하며 형성하는 나선형 소용돌이는, 변형지대가 물리적 층위이자 에너지와 생명의 동적 교란 지대임을 시각화한다.

말하자면, “변형지대(metamorphic zone)”다.³⁰⁾

변형지대는 인간, 기술, 토양, 기후, 제도, 생물, 정치와 종교 등이 서로 접촉하면서 변하는 곳이다. 임계지대 속 변형지대는 인간이 어디에 있으며, 그 안에서 무엇으로 변하는가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림1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소용돌이(maelstrom) 속에서 살아간다. 곧 심부 지구, 태양, 그리고 살아 있는 존재들이라는 세 가지 힘의 집합 사이에서 나선형으로 휘말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4. 변형: 존재론적 혼합

에마누엘레 코치아는 위와 같은 ANT와 가이아라는, 근대적 이분법의 붕괴를 추적하는 방법론적 장치에 존재론적 해석을 더하는 작업으로써 모든 존재자가 ‘변형’ 중에 있음을 주장한다.³¹⁾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씨앗이 나무가 되듯, 모든 존재는 끊임없는 ‘되기(becoming)’의 과정 안에 있다.³²⁾ 중요한 것은 이 변형이 개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코치아는 공기가 순수한 지질학적 소여가 아니라 식물의 대사 과정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생명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기 중 산소는 식물 생명의 산물, 즉 인공물이라는 것이다.³³⁾ 그렇기 때문에 호흡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숨을 이어받는 것이고,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은 타자가 만든 대기 속에 감싸이는 것, 즉, 식물적 삶이라는 세계와의 ‘혼합’에 놓이는 것이다.³⁴⁾ 우리 모두 호흡

30) 위의 책, 58.

31) Emanuele Coccia, *Metamorphoses*, 이아름 역. 『메타모르포시스』(서울: 에코리브르, 2025).

32) 위의 책, 30.

33) Emanuele Coccia, *La vie des plantes*, 류지석 역. 『식물의 삶: 쉼의 형이상학』(서울: 에코리브르, 2025), 58-62.

34) 위의 책, 77.

하나하나를 통해 세계와 물질적 교환을 이루고, 이 교환이 우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코치아는, “우리는 곧 가이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숨, 대기의 화학, 우리가 내뿜고 흡수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지구적 과정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변형 존재론에서 바라보는 변형지대는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만나고 섞이고 변형되는 접촉면이다. 이 지대에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개별 존재들은 이미 서로를 통해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치아의 변형 개념은 라투르가 말하는 변형지대와 궤를 같이한다. 라투르는 이 용어를 지질학에서 빌려왔지만 후에 『락다운 이후(After Lockdown)』에서 카프카의 『변신(Die Verwandlung)』을 인용하며 변형지대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업힘의 변형을 설명한다.³⁶⁾ 라투르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이 업힘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종을 넘어 전파되며, 우리의 호흡이 타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락다운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그리고 그 업힘이 인간이란 존재를 얼마나 재빨리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라투르는 이 경험이야말로 인간이 체감한 “변형(metamorphosis)”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다른 존재로 변형되었다.³⁷⁾ 그에 따르면 인간성이란 어떤 정체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적 구성물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와 분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다. 라투르는 카프카의 변신이 한 방향으로, 비가역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인간도 이러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형을 겪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라투르는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을 재해석하여 신기후체제의 정

35) Coccia, 『메타모르포시스』, 31.

36) Bruno Latour, *After Lockdown: A Metamorphosis*, trans. Julie Rose (Cambridge, UK: Polity Press, 2021).

37) 위의 책, 55.

치신학을 구축한다. 러브록의 원래 가이아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자기조절 시스템으로 보았지만 라투르의 가이아는 자기조절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얽힌 행위자들의 집합체다. 가이아는 조화롭지도, 전체적이지도, 목적론적이지도 않다. 가이아는 무수한 부분적 행위자들의 우발적 조합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때로 안정적이고 때로 불안정하다. 중요한 것은 가이아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해러웨이가 강조하는 “응답 가능성(response-ability)”은 책임을 넘어서 타자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타자와 함께 변형될 준비, 관계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역량을 의미한다.³⁸⁾ 그런데 가이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응답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가이아의 반응 - 폭염, 가뭄, 홍수, 생물다양성 붕괴, 바이러스 등등 - 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며, 이는 우리가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함을, 아니 이미 변형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³⁹⁾

기독교 윤리는 이러한 가이아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전통적인 창조 신학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했고,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고 가르친다(창 1:28). 그러나 이 다스림(dominion)은 종종 착취와 지배로 왜곡되어 왔다.⁴⁰⁾ 신기후체제는 우리에게 다스림을 돌봄과 함께 살기로 전환하고, 지배의 가속을 멈추고 동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간을 유일한 청지기나 돌봄의 주체로 보는 관점조차 재고해야 할지 모른다. 가이아를 소환하는 신기후체제의 세계에서 우리는 여러 행위자들 중 하나이며, 해러웨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의 경계를 넘어 친족을 만들어가는 존재, 곧 다른 행

38)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16. Cf., Latour, *Facing Gaia*, 29.

39) Latour, *Facing Gaia*, 138, 238.

40) John Hart, *Sacramental Commons: Christian Ecological Ethic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6-7.

위지들과 함께 변형의 과정을 거치며 함께 생명에 응답하는 동반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긴장을 명시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투르의 ANT와 코치아의 변형 존재론은 모든 존재자가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존재론적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비인간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강력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물음을 불러온다. 존재론적 업힘이 평등하다고 해서 그 업힘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방식까지 평등한가? I장에서 지적했듯,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극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식민지 역사, 젠더 불평등, 계급 구조는 ‘주어진 관계’가 어떻게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후 III장에서 논의할 ‘선택 이전의 책임’과 ‘업힘의 커먼즈’가 기존 불평등 구조를 자연화하는 방식으로 읽히지 않으려면, 응답의 요청이 모든 행위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 많이 배출한 자에게 더 무거운 응답이 요청되고, 더 많은 피해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두터운 연대가 요청된다. 업힘의 윤리는 차이에 응답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업힘의 존재론이 기독교 윤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출발점임을 주장한다.⁴¹⁾

III. 기독교 윤리의 자리: 행위자-연결망으로서의 교회

1. 교회됨의 재사유

업힘의 세계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41) 이 단락은 익명의 심사자 두 분의 제언을 수용하여 추가하였다. 한 심사자는 존재론적 평등성의 강조가 정치적 불균등성의 문제를 논의 전면에서 후퇴시킬 위험을 지적하였고, 다른 심사자는 업힘 이론들 사이의 비평적 대화와 기독교 윤리로의 담론적 연속성 심화를 제안하였다. 이 긴장을 논문 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의의 정치적 차원을 선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배 공동체, 또는 제도적 조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의 연결망이다. 교회는 신자들 뿐 아니라 건물, 주차장, 의례, 텍스트(성경, 찬송가, 신학 문헌), 성찬의 빵과 포도주, 음악, 조직 구조, 법적 지위, 역사적 전통,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들(토지, 기후, 생태계)의 복잡한 조합이다.⁴²⁾ 교회됨, 특히 인류세 시대의 교회됨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 강조점을 둔다. 예를 들어,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교회를 세상과 대조되는 ‘대안적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교회는 세상의 폭력, 탐욕, 거짓에 대항하는 평화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윤리적 증언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세 시대를 맞이하며 이러한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의미를 확장해야만 한다. 교회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을 이해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증언은 인간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즉 모든 피조물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인류학자인 애나 칭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개념은 이러한 교회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칭은 그녀의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 원칙이 휩쓸고 가서 황폐화된 땅에서도 종을 넘나드는 일종의 존재 사이의 협업이 일어남을 보여준 바 있다.⁴³⁾ 송이 버섯이 자라는 현장은 나무와 균근의 공생, 곤충의 매개, 인간 채취자의 노동, 글로벌 시장의 수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라는 의미 부여가 한데 뒤얽힌 다중적 아상블라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교회는 이미 완결

42) 김희준, “인류세 시대의 교회됨 - 라투르와 칭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42(2025), 115-145.

43) Anna Tsing,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노고운 역, 『세상 끝의 버섯』(서울: 현실문화연구, 2023).

된 제도적 실체라기보다, 다양한 존재 또는 행위자들이 접속하고, 구성되고, 이탈하며, 다시 재구성되는 등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어가는 열린 연결망에 가깝다. 이 교회-연결망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데 때로는 견고하게 유지되다가도 예기치 않게 흔들린다. 새로운 행위자가 진입하고, 기존의 관계가 재편되며,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번역의 임무가 실패하거나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자체가 변형되어 간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교회는 인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세례의 물, 예배당의 공간, 찬송가의 멜로디, 성경 텍스트는 인간의 종교 활동을 위한 도구나 상징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구성하는 능동적 행위자들이다. 둘째, 교회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교회는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중세의 교회,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 현대의 교회는 전혀 다른 연결망이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 시대에서의 교회 또한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초지역적이다. 각 지역 교회는 고유한 연결망 형성하지만, 동시에 더 큰 연결망(교단, 에큐메니컬 운동, 세계 기독교)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이 연결을 비인간 존재들과의 연결로 확장해야만 한다.

2. 선택 이전의 책임: 윤리의 재구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자유의지는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 이것이 전통적 윤리 패러다임의 중요한 축이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44)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자유의지 윤리는 엄힘의 세계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자유의지 윤리는 자율적 개인을 전제하지만, 우리는 이미 관계 안에 얽혀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행위성은 연결망 효과이다. 순수하게 자유로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자유의지 윤리는 명확한 선택의 순간을 전제하지만,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기후위기는 수백 년에 걸친 수십억 행위자들의 누적된 행위의 결과이다. 셋째, 자유의지 윤리는 인간 중심적이어서,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도덕적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인류세-신기후체제를 함의 하는 엄힘의 세계에서는 비인간 행위자들 역시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한계들은 자유의지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이루자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는 선을 향해 의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그 능력을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 즉 은총에의 의존을 전제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의지가 분열되어 있음을, 즉 선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아의 내적 갈등을 서술한다.⁴⁵⁾ 이 갈등은 자유의지의 폐기가 아니라, 인간 의지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역사적 조건 안에 위치해 있음을, 그리고 놓여져 있음을 가리킨다. 하우어워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적 통찰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로 이어온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는 추상적 개인이 아니라 특정 이야기(*narrative*)와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⁴⁶⁾ 덕은 개인의 의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실천과 이야기를 통해 훈련되고 습득된다. 이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45) Augustine, *Confessiones* VIII,8-12, 성염 역, 『고백록』(왜관: 분도출판사, 2016), 355-385.

46)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chs. 2-3.

러한 이야기는 ANT의 관계적 행위자 개념과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만난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이야기-형성 공동체’ 안의 행위자와 라투르가 말하는 ‘연결망-구성 행위자’는 모두 관계보다 우선하는 완결된 자율적 주체의 선존재를 거부한다. 물론 둘의 차이도 분명한데, 하우어워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책임을 규정한다. 반면 ANT의 연결망은 어떤 중심 서사도 갖지 않는다.⁴⁷⁾ 그러나 바로 이 차이가 기독교 윤리의 고유한 기여를 드러낸다. 업힘의 존재론이 우리가 이미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그 관계에 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담긴 어떤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응답하는 공동체다.

필자는 ‘선택 이전의 책임(responsibility before choice)’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자유는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응답가능성(response-ability)이며, 자유는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 이전에 이미 얽혀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며, 이 관계성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나는 내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들과의 관계 안에 있다.⁴⁸⁾ 이 업힘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며 윤리적 관계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행위들 - 우리 자신의 행위 뿐 아니라 선조들의 행위 - 의 결과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역사적 조건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이전 세대들의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야 한다. 선택 이전의 책임은 결정론이나 숙명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얽혀

47) 그렇다고 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투르와 서사와의 관계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52-55. Cf., 김홍중,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서울: 이음, 2025), 210.

48) Daniel Matthews, *Earthbound: The Aesthetics of Sovereignty in the Anthropocen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1), 172.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업힘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역동적 과정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 참여하며, 우리의 응답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책임적 존재로서, 업힘 존재로서 선택한다.

3. 환대: 열려짐의 존재론

환대는 흔히 누군가를 맞아들여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이지만 환대에 대한 속깊은 이야기는 ‘불가능한 머무름’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머무는 것이 없다는 사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며 생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이야말로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대는 어렵다. 왜냐하면 환대는 관계에 관한 것, 특히 새로운 관계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환대 개념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문을 여는 행위를 전제한다. 환대하는 자는 주체이며, 소유자이며, 문을 열 수 있는 권한, 권력, 권리, 힘을 가진 자다. 근대 시민사회는 이 구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세련화했지만, 그것에 담긴 위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오늘날의 환대에 담겨있다. 관용이란 결국 힘의 비대칭을 전제한 시혜이며,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안과 밖의 경계를 오히려 공고히 한다. 그러나 업힘의 존재론이 보여주듯, 진정한 열림은 주체의 자발적 개방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열림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진정한 열림은 외부를 향해, 외부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언어를 향해 스스로 열린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열었고, 우리가 세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 땅과 관계들이 우리를 이 세계 안으로 불러들였다. 우리 존재의 출발점은 자율적 자아가 아니라 이미 ‘나’를 관통하고

있는 외부, 땅에 의해 열리게 된 존재다. 모든 것이 그렇다. 이렇게 볼 때 환대의 주체는 문을 여는 주인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버린 존재, 자신이 먼저 받아들여졌음을 아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소유한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들 사이를 잇는 연결이고 통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대는 선택 이전의 책임과 연결된다. 코치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이미 세계와 “섞여” 있다. 호흡 하나하나가 세계를 우리 안으로 환대하는 것이며, 우리가 먹는 순간 다른 생명체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몸은 죽어 묻히면 썩고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 받아들여진다.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대를 의식하고, 의무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환대의 책임은 우리가 이미 필멸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받아들여졌음을 수긍하고 겸허해지는 그러한 책임이다.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환대의 존재론과 결을 함께 한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물질이 되었음을, 물질이 신적 현존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한다.⁴⁹⁾ 이는 물질에 대한 환대이며, 동시에 물질을 통한 환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들이다(창 2:7). 흙의 존재로서 우리는 땅에 속하며, 이 속함 자체가 환대의 근원적 조건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관계적 존재의 근원 그 자체인, 관계적 실재의 근본임을 보인다.

49) Hart, *Sacramental Commons*, xv-xvi.

IV. 공동의 삶과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

앞서 기술한 관계적 삶으로서의 공동의 삶은 커먼즈(communs)의 삶이다. 커먼즈는 전통적으로 공유 자원의 관리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이후,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동체의 자치적 자원 관리 가능성을 입증했고, 최근에는 피터 라인보우와 데이비드 볼리어 등이 커먼즈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재조명해왔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커먼즈를 ‘무엇’으로, 다시 말해서 관리해야 할 자원, 보호해야 할 공간, 되찾아야 할 권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커먼즈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을 제안한다. 커먼즈는 단지 공유되는 자원에 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관계”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이러한 ‘관계적 존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른바 ‘관계적 커먼즈’ 또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이미 있으며, 이 얽힘 자체가 삶을 구성하는 커먼즈이다.

얽힘은 관계적 커먼즈의 본성을 가장 잘 포착하는 단어다. 해러웨이가 강조하듯, 우리는 “영킨(entangled)” 존재다.⁵²⁾ 이러한 ‘얽힘의 커먼즈’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전통적 커먼즈 개념과 구별된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50)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Science* 162, no. 3859 (1968), 1243-48;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윤흥근, 안도경 역.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서울: RHK, 2010); Peter Linebaugh,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David Bollier and Silke Helfrich,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2019).

51) 최현, “공동자원론으로 본 제주개발사,” 최현, 장훈교, 윤여일, 박서현 편저, 『공동자원의 영역들』(과천: 진인진, 2019), 56.

52)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39.

전통적 커먼즈가 물, 숲, 어장 같은 자원을 다룬다면, 업힘의 커먼즈는 관계성 자체를 다룬다. 둘째, 주체가 다르다. 전통적 커먼즈의 주체는 인간 공동체였지만, 업힘의 커먼즈는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집합체 (assemblage)를 포함한다. 셋째, 시간성이 다르다. 전통적 커먼즈가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업힘의 커먼즈는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업힘의 커먼즈 관점에서 공동의 삶은 특별히 선택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의 삶을 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의 삶은 동질성의 덩어리가 아니라 다름들이 얽혀 만들어내는 역동적 연결망이다. 공동체의 진정한 생명력은 바로 그 차이와 낯선 연결을 허용하는 환대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러한 업힘의 커먼즈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이 관계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주어짐 안에서 우리는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지구에 묶인 존재로서, 관계적 존재로서, 변형 중인 존재로서 우리의 공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 이것이 인류세 시대의 윤리적 질문이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인류세 시대의 ‘업힘’이라는 존재론적 조건 안에서 기독교 윤리의 자리를 물었다. 신기후체제의 현실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의 근대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행위자들과 얽혀 있으며, 이 업힘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존

재하는 존재론적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여러 이론적 자원을 동원했다.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의 연결망 속에서 상호 구성됨을 보여주었다. 코치아의 변형 존재론은 모든 존재가 끊임 없는 되기의 과정 안에 있으며, 이 변형이 대기적 관계 속에서 일어남을 주장했다. 가이아 개념과 임계지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얽힘의 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 이전의 책임’과 ‘공동의 삶’이라는 두 윤리적 원리를 제안했다.

기독교 윤리가 더 이상 인류세 시대와 신기후체제의 도전을 부차적인 안건으로 치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후위기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며, 창조, 구원,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얽힘의 세계에서 우리는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뒤섞인 존재이며, 이 뒤섞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얽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공동의 삶 안에서 현존하신다. 얽힘 안에서 책임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중.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서울: 이음, 2025.
- 김희준. “인류세 시대의 교회됨: 라투르와 칭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제42호 (2025), 115-145.
- 김희준. “인공지능과 커먼즈.” 『기독교철학』 제43호 (2025), 7-52.
- 최현. “공동자원론으로 본 제주개발사.” 최현, 장훈교, 윤여일, 박서현 편저. 『공동 자원의 영역들』. 과천: 진인진, 2019.
- Augustine. *Confessiones*, 성염 역. 『고백록』.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Arènes, Alexandra, Bruno Latour, and Jérôme Gaillardet. “Giving Depth to the Surface: An Exercise in the Gaia-Graphy of Critical Zones.” *The Anthropocene Review* 5, no. 2 (2018), 120-135, <https://doi.org/10.1177/2053019618782257>.
-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 Bell, John Stewart Bell, “On the Einstein Podolsky Rosen Paradox.” *Physics* 1, no. 3 (1964), 195-200.
- Bennett, Jane.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서울: 현실문화, 2020.
- Bollier, David, and Silke Helfrich.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2019.
- Crutzen, Paul J. and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BP Newsletter* 41 (2000), 17-18.
- Crutzen, Paul.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 23 (Jan. 2002), 211-215.
- Callon, Michel and Bruno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In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ies*. Ed. K. Knorr-Cetina and A. V. Cicourel, 277-303. Boston, MA: Routledge & Kegan Paul, 1981.
- Coccia, Emanuele. *La vie des plantes*, 류지석 역. 『식물의 삶: 섞임의 형이상학』.

- 서울: 에코리브르, 2025.
- _____. *Metamorphoses*, 이아름 역. 『메타모르포시스』. 서울: 에코리브르, 2025.
- Einstein, Albert, Boris Podolsky, and Nathan Rosen, "Can Quantum-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Physical Review* 47, no. 10 (1935), 777-780.
- Haraway, Donna J.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Science* 162, no. 3859 (1968), 1243-48
- Hart, John. *Sacramental Commons: Christian Ecological Ethic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Latour, Bruno. *After Lockdown: A Metamorphosis*. Translated by Julie Rose. Cambridge: Polity Press, 2021.
- _____.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Polity Press, 2018.
- _____.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Polity Press, 2017.
- _____.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2009.
- Law, John. *After Method: Mess in Social Science Research*. London: Routledge, 2004.
- Linebaugh, Peter.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 Matthews, Daniel. *Earthbound: The Aesthetics of Sovereignty in the Anthropocen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1.
- McNeil, John and Peter Engelke. *The Great Acceleration: An Environmental History of the Anthropocene since 1945*.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Moore, Jason W.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In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edited by Jason W. Moore, 1-11. Oakland: PM Press, 2016.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윤홍근, 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서울: RHK, 2010.

Reich, Nicholas Tyler. "Trans*Plantationocene." In *The Anthropocene: Approaches and Contexts for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edited by Seth T. Reno, 76-86. London, UK: Routledge, 2022.

Steffen, Will, Paul Crutzen and John McNeill.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Vol. 36, no.8 (Dec., 2007), 614-621.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Tsing, Anna.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노고운 역. 『세상 끝의 버섯』.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3.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4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인류세 시대의 “엷힘”이라는 존재론적 조건 안에서 기독교 윤리의 위치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파괴가 가속화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전통적인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엷혀 있는 존재이며, 이 엷힘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사실이다.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가이아 개념, 에마누엘레 코치아의 변형 존재론, 신유물론적 관점에서의 환대 개념, 그리고 커먼즈 담론을 연이어 살펴보면, ‘선택 이전의 책임’과 ‘공동의 삶’이라는 두 가지 윤리적 원리를 제안한다.

주제어: 엷힘, 기독교 윤리, 행위자-연결망 이론, 메타모르포시스, 커먼즈
